



기연
奇緣 모의고사

기연 奇緣 모의고사

기연(奇緣)모의고사는 기출과 연계, 그 운명적 만남을 수험생의 손에 쥐여줍니다.

- 『기연(奇緣)』이라는 이름은 기출의 흐름 속에서, 연계의 방향을 꿰뚫는 운명적 만남을 뜻합니다.
- 『기연모의고사』는 수능에서 만날 수밖에 없는 운명적 문제 유형과 논리 구조를 훈련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 모든 지문은 수능형 독해 구조를 중심으로 제작되며, 선지 구성 역시 논리적 판단 기준에 따라 제작되었습니다.
- 단순한 자료집이 아니라, 기출과 연계의 본질적 구조를 하나의 흐름으로 엮은 연계 대비 모의고사입니다.
- 평가원 기출의 맥락을 따라가며, EBS 소재를 재구성한 비문학/문학 자체 제작 문항을 통해 실전을 대비합니다.

펴낸일	2025년 04월 14일
펴낸곳	세인트로복스
저자	성현국어연구소
홈페이지	blog.naver.com/aufkai
질의응답	https://open.kakao.com/o/gKkso1qh

성현국어 기연모의고사에 관한 저작권은 세인트로복스에 있습니다.

본 모의고사는 교육을 위한 비영리적 목적으로 제작되었습니다.

본 모의고사의 일부 혹은 전체를 무단으로 복사, 복제, 게시, 판매할 수 없습니다.

제 1 교시

2026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기연모의고사 제1회

국어 영역

홀수형

성명

수험 번호

- 문제지의 해당란에 성명과 수험번호를 정확히 쓰시오.
- 답안지의 필적 확인란에 다음의 문구를 정자로 기재하십시오.

기연은 수능을 바꿀 만남을 위해 지금 당신에게 도착했다

- 답안지의 해당란에 성명과 수험번호를 쓰고, 또 수험번호, 문형 (홀수/짝수), 답을 정확히 표시하십시오.
- 문항에 따라 배점이 다릅니다. 3점 문항에는 점수가 표시되어 있습니다. 점수 표시가 없는 문항은 모두 2점입니다.

※ 공통과목 및 자신이 선택한 과목의 문제지를 확인하고, 답을 정확히 표시하십시오.

- 공통과목 1, 2, 3 쪽
- 연계 1, 2 쪽
- 기출 2, 3 쪽

※ 시험이 시작되기 전까지 표지를 넘기지 마시오.

성현국어연구소

제 1 교시

국어 영역

성명

수험 번호

[1~4]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2026학년도 수특.인예1 연계)

인식론의 한 갈래인 ‘토대주의’는 모든 참된 지식이 일정한 **기초 명제**에 근거해야 한다고 본다. 이때 기초 명제는 자명하고 독립적으로 검증 가능한 것으로 간주되며, 다른 모든 지식은 이 기초 위에 쌓인다고 여겨진다. 그러나 철학자 콰인은 이러한 구조가 개별 명제에 지나친 독자성과 절대성을 부여한다는 점에서 현실의 지식 운용 방식과 부합하지 않는다고 비판하였다. 그는 지식이 단일한 기초 위에 위계적으로 정립되는 것이 아니라, 상호 연결된 전체 체계 속에서 각 명제가 서로를 정당화한다고 주장하였다. 이와 같은 관점은 후속 연구자들에 의해 ‘의미론적 전체론’으로 정식화되었으며, 각 명제는 독립적으로 검토될 수 없고, 오직 다른 명제들과의 관계 속에서 의미를 지닌다고 본다. 따라서 지식은 단단한 기반 위에 층층이 쌓인 건축물이라기보다, 다수의 교차점으로 구성된 유기적 그물망에 가깝다.

전통 과학 철학, 특히 포퍼의 반증주의는 과학 이론이 개별 가설 단위로 검증되어야 한다고 본다. 하나의 예측이 실현되지 않았을 경우, 해당 가설이 틀렸다고 결론짓는 방식이다. 그러나 콰인은 이처럼 예측 실패를 단일 가설의 오류로 귀속시키는 태도에 의문을 제기한다. 예측은 단일 가설만으로 도출되지 않으며, 실험 조건, 측정 장비의 신뢰도, 배경 이론, 해석 기준 등 다양한 전제가 동시에 작용한 결과물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특정 예측이 빚나간 경우, 그 원인을 하나의 명제에 국한할 수 없으며, 이론 전체를 조정 대상으로 삼아야 한다. 콰인은 이 입장을 ‘총체주의’라 명명하였고, 이는 전체론이 과학적 맥락에서 구체화된 형태로 볼 수 있다. ㉠ 의미론적 전체론이 주로 언어와 의미의 정당화 문제를 다루는 반면, ㉡ 총체주의는 과학적 경험에 대한 이론 검증 문제에 적용된다. 이러한 차이는 총체주의가 전체론의 과학 철학적 응용이라는 점에서 이해될 수 있다. 예컨대 실험실에서 금속 M이 열을 받아도 팽창하지 않는다면, 과학자는 단순히 M의 성질만을 의심하는 것이 아니라 실험 설계, 측정 장비의 보정 상태, 일반화된 물리 법칙 등 다수의 요소를 함께 검토해야 한다. 이는 과학의 검증 단위가 단일 가설이 아니라 전체 이론 체계라는 점을 잘 보여주는 사례다.

총체주의는 과학 이론의 검증 단위를 개별 명제가 아닌 이론 전체로 확장한다. 과학자들은 실험 결과와 기존 이론 간의 불일치를 단순한 오류로 간주하기보다는, 기존 체계의 재검토와 조정을 유도하는 계기로 받아들인다. 이로써 과학은 고정된 진리를 향해 나아가는 일방적인 축적이 아니라, 다양한 요소들이 상호 영향을 주고받는 역동적인 체계로 이해된다. 콰인은 이러한 상호 연관성 속에서, 중심 명제조차도 수정될 수 있다고 강조하였다. 따라서 지식은 각 요소가 단일한 기준에 따라 독립적으로 정당화되는 체계가 아니라, 구성 요소들이 전체 맥락 속에서 의미를 조율받는 유기체적 구조로 파악된다.

이러한 관점은 고정된 진리를 명제 하나하나의 고유한 속성으로 간주하던 기존 인식론과는 뚜렷이 대조된다. 콰인은 진리란 특정 명제에 본질적으로 내재된 성질이 아니라, 체계 내에서의 기능과 설명력을 기준으로 판단되어야 한다고 보았다. 그에 따르면, 경험과의 충돌이 발생했을 때 단일 명제의 참·거짓 여부만으로 평가를 내리는 것은 불충분하며, 체계 전체의 정합성과 예측력을 고려한 판단이 필요하다. 이와 같은 사고방식은 단지 과학 분야에만 머무르지 않는다. 법학에서 하나의 조항이 다른 조항들과의 충돌 없이 해석되어야 하듯, 윤리나 교육과 같은 제도적 담론 역시 전체 틀 속에서 그 역할과 위치를 점검 받아야 한다는 점에서, 총체주의는 다양한 분야에 응용 가능한 철학적 모델로 평가된다.

결과적으로 콰인의 총체주의는 지식을 고정된 진리의 집합으로 보는 전통적 인식론을 넘어, 변화 가능하고 조정 가능한 구조로 이해하도록 유도한다. 이때 핵심은 개별 명제의 참됨이 아니라, 그것이 속한 체계의 조화와 설명력이 된다. 이와 같은 관점은 단일한 사실 판단에서 벗어나, 전체 체계의 작동 방식을 조율하는 실천적 철학의 가능성을 열어준다. 총체주의는 과학 이론의 평가 기준을 재정립하고, 지식 체계 전반에 걸쳐 보다 유연하고 통합적인 이해 방식을 제안함으로써, 현대 인식론의 중요한 전환점으로 자리잡는다.

1. 윗글의 전개 방식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전통 인식론의 핵심 개념을 요약하고, 그 역사적 함의를 소개한다.
- ② 기존 철학적 관점을 비판하고, 대안을 구체적 사례를 통해 제시한다.
- ③ 과학적 사례를 통해 철학 개념의 현실 적용 가능성을 반박한다.
- ④ 언어 이론과 과학 이론 간의 개념적 공통점을 중심으로 비교 설명한다.
- ⑤ 철학 이론 간의 계보를 설명한 뒤, 현대적 재해석을 부연한다.

2. 토대주의의 **기초 명제**에 해당하는 내용으로 적절한 것은?

- ① 다수의 전제와 실험 조건을 통해 참됨이 검증된 경험 명제
- ② 그 자체로 참이 명백하다고 여겨져 다른 명제의 근거가 되는 명제
- ③ 여러 명제 간 정합성 속에서만 의미가 형성되는 문장
- ④ 과학 이론 전체의 설명력 속에서 그 타당성이 유지되는 주장
- ⑤ 철학적 전통에서 반복적으로 수용된 기본 개념

3. ㉠과 ㉡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은 경험적 검증을 중시하고, ㉡은 의미 구조에 초점을 둔다.
- ② ㉠은 언어의 사용 맥락에서 의미가 결정된다고 보며, ㉡은 개별 명제의 진위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 ③ ㉠은 명제들 사이의 의미적 상호작용을, ㉡은 과학 이론 검증에서의 상호 정당화 과정을 강조한다.
- ④ ㉠은 과학 이론의 실험 설계를 중시하고, ㉡은 의미 분석에 주력한다.
- ⑤ 두 이론 모두 명제를 독립된 단위로 보지 않지만, ㉠과 달리 ㉡은 명제 간의 논리적 동일성을 전제로 한다.

4. <보기>는 콰인의 총체주의가 현실의 과학 실험에 어떻게 적용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사례이다. 윗글을 바탕으로 <보기>를 이해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3점]

< 보 기 >

한 생물학자는 기존 이론에 따라, 세균 A는 37°C의 영양 배지 환경에서 2시간 이내에 대량 증식할 것이라고 가설을 수립하고 결과를 예측하였다. 그러나 실험 결과, 6시간이 지나도록 세균 증식이 관찰되지 않았다.

이에 그는 다음과 같은 검토를 수행하였다.

- (I) 실험실 온도가 36.2°C로 설정되어 있었는지 확인하였다.
- (II) 사용된 영양 배지의 성분 내 비타민 B군 농도가 규정치보다 낮음을 발견하였다.
- (III) 측정에 사용된 분광 광도계의 레이저 파장이 불안정했음을 기록하였다.
- (IV) 증식 기준을 30% 광밀도 증가로 정의했으나, 기준 자체의 타당성에 의문을 제기하였다.
- (V) 세균 A에 대한 기존 증식 모델이 특정 환경에서는 적용되지 않을 수 있음을 재해석하였다.

(단, 위의 수행된 검토를 제외한 다른 원인은 고려하지 않음.)

- ① 실험 실패 원인을 실험 장비의 문제로 한정함으로써 기존 이론의 안정성을 강조하였다.
- ② 측정 기준의 재검토는 총체주의가 주장하는 명제 간 독립성의 중요성을 뒷받침한다.
- ③ 실험 결과를 계기로 가설 폐기에 이른 것은 총체주의적 오류 분석의 예시이다.
- ④ 실험 결과를 특정 명제의 문제로 보지 않고, 전체 체계 속에서 원인을 분산시켜 분석하였다.
- ⑤ 실험 실패 원인을 변수에서 제거한 후, 중심 이론을 보완 없이 유지하였다.

[5~9]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십시오.(2017학년도.11.수능)

㉠ 논리실증주의자와 포퍼는 지식을 수학적 지식이나 논리학 지식처럼 경험과 무관한 것과 과학적 지식처럼 경험에 의존하는 것으로 구분한다. 그중 과학적 지식은 과학적 방법에 의해 누적된다고 주장한다. 가설은 과학적 지식의 후보가 되는 것인데, 그들은 가설로부터 논리적으로 도출된 예측을 관찰이나 실험 등의 경험을 통해 맞는지 틀리는지 판단함으로써 그 가설을 시험하는 과학적 방법을 제시한다. 논리실증주의자는 예측이 맞을 경우에, 포퍼는 예측이 틀리지 않는 한, 그 예측을 도출한 가설이 하나씩 새로운 지식으로 추가된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 콰인은 가설만 가지고서 예측을 논리적으로 도출할 수 없다고 본다. 예를 들어 ㉠ 새로 발견된 금속 M은 열을 받으면 팽창한다는 가설만 가지고는 ㉡ 열을 받은 M이 팽창할 것이라는 예측을 이끌어낼 수 없다. 먼저 지금까지 관찰한 모든 금속은 열을 받으면 팽창한다는 기존의 지식과 M에 열을 가했다는 조건 등이 필요하다. 이렇게 예측은 가설, 기존의 지식들, 여러 조건 등을 모두 합쳐야만 논리적으로 도출된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예측이 거짓으로 밝혀지면 정확히 무엇 때문에 예측에 실패한 것인지 알 수 없다는 것이다. 이로부터 콰인은 개별적인 가설뿐만 아니라 ㉢ 기존의 지식들과 여러 조건 등을 모두 포함하는 전체 지식이 경험을 통한 시험의 대상이 된다는 총체주의를 제안한다.

논리실증주의자와 포퍼는 수학적 지식이나 논리학 지식처럼 경험과 무관하게 참으로 판별되는 분석 명제와, 과학적 지식처럼 경험을 통해 참으로 판별되는 종합 명제를 서로 다른 종류라고 구분한다. 그러나 콰인은 총체주의를 정당화하기 위해 이 구분을 부정하는 논증을 다음과 같이 제시한다. 논리실증주의자와 포퍼의 구분에 따르면 “총각은 총각이다.”와 같은 동어 반복 명제와, “총각은 미혼의 성인 남성이다.”처럼 동어 반복 명제로 환원할 수 있는 것은 모두 분석 명제이다. 그런데 후자가 분석 명제인 까닭은 전자로 환원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환원이 가능한 것은 ‘총각’과 ‘미혼의 성인 남성’이 동의적 표현이기 때문인데 그게 왜 동의적 표현인지 물어보면, 이 둘을 서로 대체하더라도 명제의 참 또는 거짓이 바뀌지 않기 때문이라고 할 것이다. 하지만 이것만으로는 두 표현의 의미가 같다는 것을 보장하지 못해서, 동의적 표현은 언제나 반드시 대체 가능해야 한다는 필연성 개념에 다시 의존하게 된다. 이렇게 되면 동의적 표현이 동어 반복 명제로 환원 가능하게 하는 것이 되어, 필연성 개념은 다시 분석 명제 개념에 의존하게 되는 순환론에 빠진다. 따라서 콰인은 종합 명제와 구분되는 분석 명제가 존재한다는 주장은 근거가 없다는 결론에 ㉣ 도달한다.

콰인은 분석 명제와 종합 명제로 지식을 엄격히 구분하는 대신, 경험과 직접 충돌하지 않는 중심부 지식과, 경험과 직접 충돌할 수 있는 주변부 지식을 상정한다. 경험과 직접 충돌하여 참과 거짓이 쉽게 바뀌는 주변부 지식과 달리 주변부 지식의 토대가 되는 중심부 지식은 상대적으로 견고하다. 그러나 이

둘의 경계를 명확히 나눌 수 없기 때문에, 콰인은 중심부 지식과 주변부 지식을 다른 종류라고 하지 않는다. 수학적 지식이거나 논리학 지식은 중심부 지식의 한가운데에 있어 경험에서 가장 멀리 떨어져 있지만 그렇다고 경험과 무관한 것은 아니라는 것이다. 그런데 주변부 지식이 경험과 충돌하여 거짓으로 밝혀지면 전체 지식의 어느 부분을 수정해야 할지 고민하게 된다. 주변부 지식을 수정하면 전체 지식의 변화가 크지 않지만 중심부 지식을 수정하면 관련된 다른 지식이 많기 때문에 전체 지식도 크게 변화하게 된다. 그래서 대부분의 경우에는 주변부 지식을 수정하는 쪽을 선택하겠지만 실용적 필요 때문에 중심부 지식을 수정하는 경우도 있다. 그리하여 콰인은 중심부 지식과 주변부 지식이 원칙적으로 모두 수정의 대상이 될 수 있고, 지식의 변화도 더 이상 개별적 지식이 단순히 누적되는 과정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총체주의는 특정 가설에 대해 제기되는 반박이 결정적인 것처럼 보이더라도 그 가설이 실용적으로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언제나 그와 같은 반박을 피하는 방법을 강구하여 그 가설을 받아들일 수 있다. 그러나 총체주의는 “A이면서 동시에 A가 아닐 수는 없다.”와 같은 논리학의 법칙처럼 아무도 의심하지 않는 지식은 분석 명제로 분류해야 하는 것이 아니냐는 비판에 답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다.

5. 윗글을 바탕으로 할 때, ㉠과 ㉡이 모두 ‘아니요’라고 답변할 질문은?

- ① 과학적 지식은 개별적으로 누적되는가?
- ② 경험을 통하지 않고 가설을 시험할 수 있는가?
- ③ 경험과 무관하게 참이 되는 지식이 존재하는가?
- ④ 예측은 가설로부터 논리적으로 도출될 수 있는가?
- ⑤ 수학적 지식과 과학적 지식은 종류가 다른 것인가?

6. 윗글에 대해 이해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포퍼가 제시한 과학적 방법에 따르면, 예측이 틀리지 않았을 경우보다는 맞을 경우에 그 예측을 도출한 가설이 지식으로 인정된다.
- ② 논리실증주의자에 따르면, “총각은 미혼의 성인 남성이다.”가 분석 명제인 것은 총각을 한 명 한 명 조사해 보니 모두 미혼의 성인 남성으로 밝혀졌기 때문이다.
- ③ 콰인은 관찰과 실험에 의존하는 지식이 관찰과 실험에 의존하지 않는 지식과 근본적으로 다르다고 한다.
- ④ 콰인은 분석 명제가 무엇인지는 동의적 표현이란 무엇인지에 의존하고, 다시 이는 필연성 개념에, 필연성 개념은 다시 분석 명제 개념에 의존한다고 본다.
- ⑤ 콰인은 어떤 명제에, 의미가 다를 뿐만 아니라 서로 대체할 경우 그 명제의 참 또는 거짓이 바뀌는 표현을 사용할 수 있으면, 그 명제는 동어 반복 명제라고 본다.

7. 윗글을 바탕으로 총체주의의 입장에서 ㉠~㉣에 대해 평가한 것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 ① ㉠이 거짓으로 밝혀지더라도 그것이 ㉡ 때문이라고 단정하지 못하겠군.
- ② ㉠이 거짓으로 밝혀지면 ㉣의 어느 부분을 수정하느냐는 실용적 필요에 따라 달라지겠군.
- ③ ㉠은 ㉡와 ㉣로부터 논리적으로 도출된다고 하겠군.
- ④ ㉠이 거짓으로 밝혀지면 ㉠은 ㉣의 주변부에서 경험과 직접 충돌한 것이라고 하겠군.
- ⑤ ㉠이 거짓으로 밝혀지면 ㉣를 수정하는 방법으로는 ㉡를 받아들일 수 없다고 하겠군.

8. 윗글의 총체주의에 대한 비판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가설로부터 논리적으로 도출된 예측이 경험과 충돌하더라도 그 충돌 때문에 가설이 틀렸다고 할 수 없다.
- ② 논리학 지식이나 수학적 지식이 중심부 지식의 한가운데에 위치한다고 해서 경험과 무관한 것은 아니다.
- ③ 전체 지식은 어떤 결정적인 반박일지라도 피할 수 있기 때문에 수정 대상을 주변부 지식으로 한정하는 것은 잘못이다.
- ④ 중심부 지식을 수정하면 주변부 지식도 수정해야 하겠지만, 주변부 지식을 수정한다고 해서 중심부 지식을 수정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 ⑤ 중심부 지식과 주변부 지식 간의 경계가 불분명하다 해도 중심부 지식 중에는 주변부 지식들과 종류가 다른 지식이 존재한다.

9. 문맥상 ㉢과 바꿔 쓰기에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잇따른다 ② 다다른다 ③ 봉착한다
- ④ 회귀한다 ⑤ 기인한다

* 확인 사항
○ 답안지의 해당란에 필요한 내용을 정확히 기입(표기)했는지 확인하십시오.